

가족계획에 대한 미혼 남녀의 지식 및 태도 조사

중앙의학 제40권 제5호, pp. 313~320, 1981.

김 문 영

1981년 3월2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 안동시내에 취업 중인 일부 미혼 남녀 240명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가족계획 용어의 인식도에서 남녀 모두 비교적 정확한 지식인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. (80%, 84.2%).

2. 가족계획 용어에 지식경로는 매스콤을 통한 것이 남녀 모두 48.3%, 57.5%로 가장 많았다. ($p < 0.01$)

3. 가족계획에 관한 추후교육에 관해서 89.6%가 교육받기를 희망했고, 시청각교육 26.5%, 단 25.1% 순으로 교육방법으로 원하고 있었다.

4. 가족계획 교육실시가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남녀 모두 중·고교시절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. (59% 62%).

5. 장차 가족계획을 실시할 예정인 사람은 남자 69.2%, 여자 80%로 나타났으며 남자 27.5%, 여자 19.2%가 경우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했다.

6.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 86.7%, 여자 91.7%가 필요한 시책이라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남자 75%, 여자 76.4%에서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.

7.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의사 27.1%, 친구 14.2% 순으로 나타났다. ($p < 0.01$)

8. 피임방법의 채택 희망율은 경구피임약이 17.9%, 콘돔 12.9%, 정관수술 8.8%, 월경주기법 4.6% 순으로 나타났다. ($p < 0.01$)

9. 남아선호도는 남자 63.3%, 여자 52.5%, 초대·전문학교졸업자의 45.7%, 대학졸업자의 55.6%에서 남아가 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

10. 결혼 후 희망 자녀 수는 남녀 모두 아들이건 딸이건 둘만 낳겠다고 가장 많았다. (53.3%)

안동시내 기혼 남녀의 가족계획에 대한 견해 및 실태 조사

중앙의학 제41권 제1호, pp. 33~39, 1981.